본 문: 삼하 20:1-26

제목:세바의 반역

1. 불량배 세바

불량배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. 그는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며 다윗에게 대항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.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따랐다(삼하 20:1-2).

2. 후궁

다윗은 압살롬에 의해 피해를 입은 후궁 10명(삼하 16:22)에 대해 조치를 내렸다. 그들은 격리되어 외롭게 평생을 살았다(삼하 20:3).

3. 아마사를 세움

다윗은 아마사를 세워 유다의 군대를 모으고 세바의 반란 진압 임무를 맡겼으나, 유다 사람들은 반역자였던 그를 따르지 않았다(삼하 20:4-5).

4. 아마사의 죽음

- 1) 아비새에게 다시 명령을 내림 아마사가 임무수행이 늦어지자, 다윗은 아비새에게 다시 임무를 맡겼다(삼하 20:6-7).
- 2) 요압이 아마사를 죽임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과 질투로 아마사를 죽이고,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뒤쫓았다(삼하 20:8-13).

5. 세바의 죽음

- 1) 세바가 납달리 지역 벧마아가를 반역 거점지로 삼자, 요압은 성을 무너뜨리고 성 거주민을 모두 멸하려 했다 (삼하 20:14-15).
- 2) 그 성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 장군과 협상 후 거주민 들을 설득하여 세바의 머리를 내어주고, 성은 보호를 받게 되었다(삼하 20:16-22).

6. 다윗이 세운 관리들

다윗은 관리들을 세워 조직을 재정비했다(삼하 20:23-26).